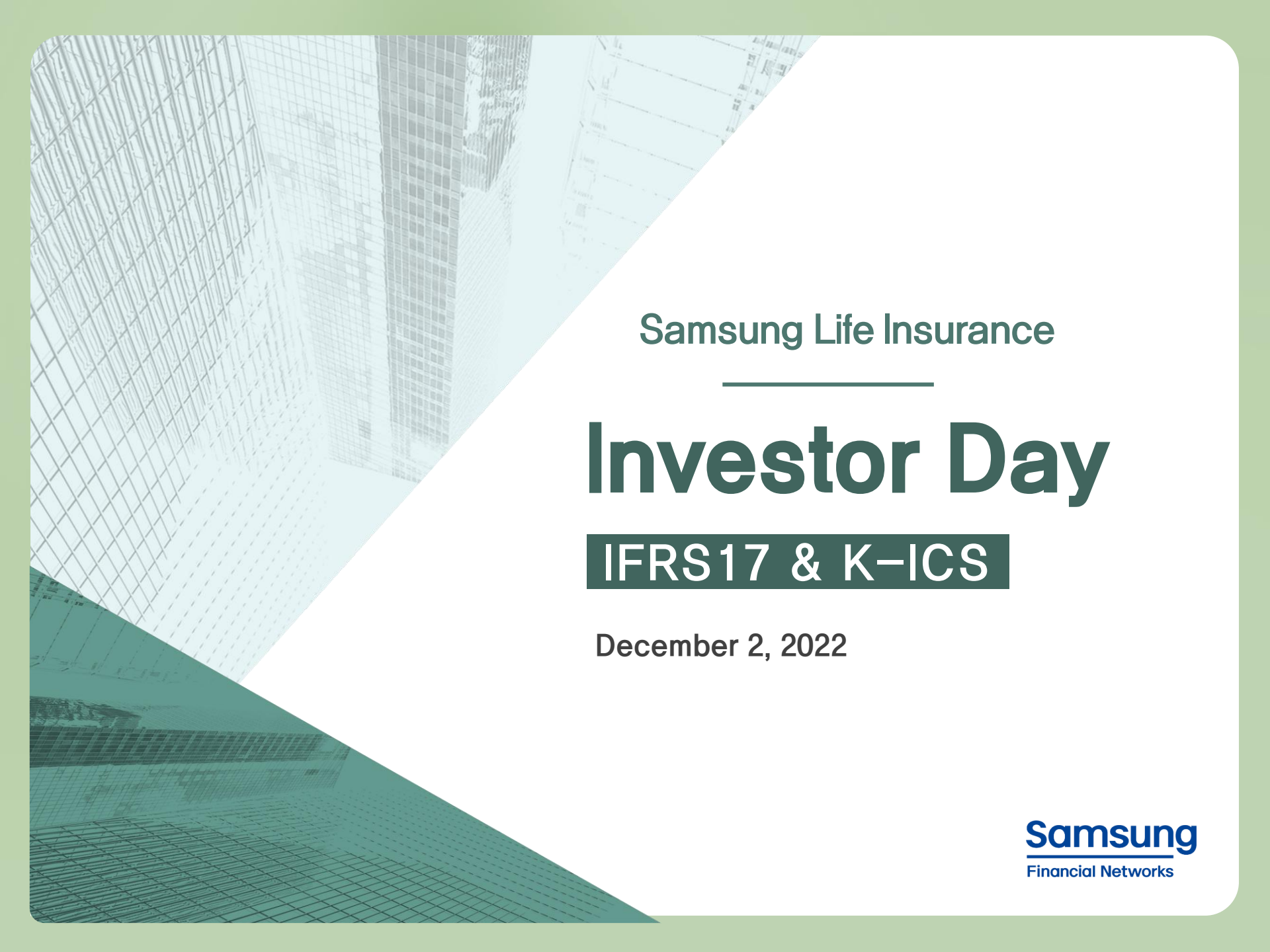




Samsung Life Insurance

Investor Day

IFRS17 & K-ICS

December 2, 2022

Samsung
Financial Networks

Disclaimer

삼성생명보험주(“회사”)가 준비한 본 프레젠테이션은 단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회사의 구두 설명이 없는 불완전하며 회사의 구두 설명과 함께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귀하는 본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에 구속됨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정보와 의견은 본 프레젠테이션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외부기관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습니 다. 본 문서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시된 정보가 정확, 공정 또는 완전하다고 신뢰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문서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전망에 대한 완전하거나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자료들이 그러한 분석을 제공한다고 신뢰하여서는 안됩니다.

과거의 실적은 미래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프레젠테이션의 정보에는 변경될 수 있는 본 프레젠테이션 일자 기준의 유력한 조건과 경영 전망을 반영한 미래예측 진술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미래예측 진술은 사업, 경제 및 경쟁에 의한 불확실성 및 불의의 사고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수많은 예측 및 현재의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는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이 반드시 발생하거나 계획이 실행되고 회사의 가정이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미래예측 진술에 예정된 것과 현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프레젠테이션 일자 이후의 새로운 정보나 미래의 사건 등을 반영해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투자 권고나 법, 회계 또는 세무상의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은 투자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어떠한 증권의 매도를 제안하거나 매수제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 배포 또는 전달되거나 활용될 수 없습니다.



목차

IFRS17 개요 및
재무제표상 주요 변화

재경팀장

IFRS17 보험부채 및
CSM 손익의 이해

계리팀장

K-ICS 제도

RM팀장

맺음말

C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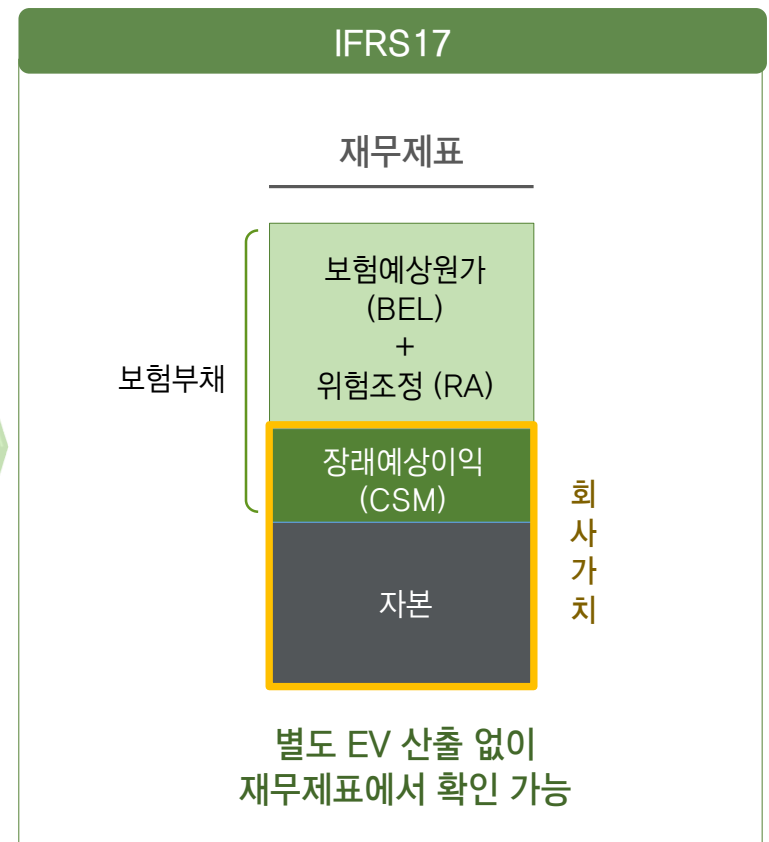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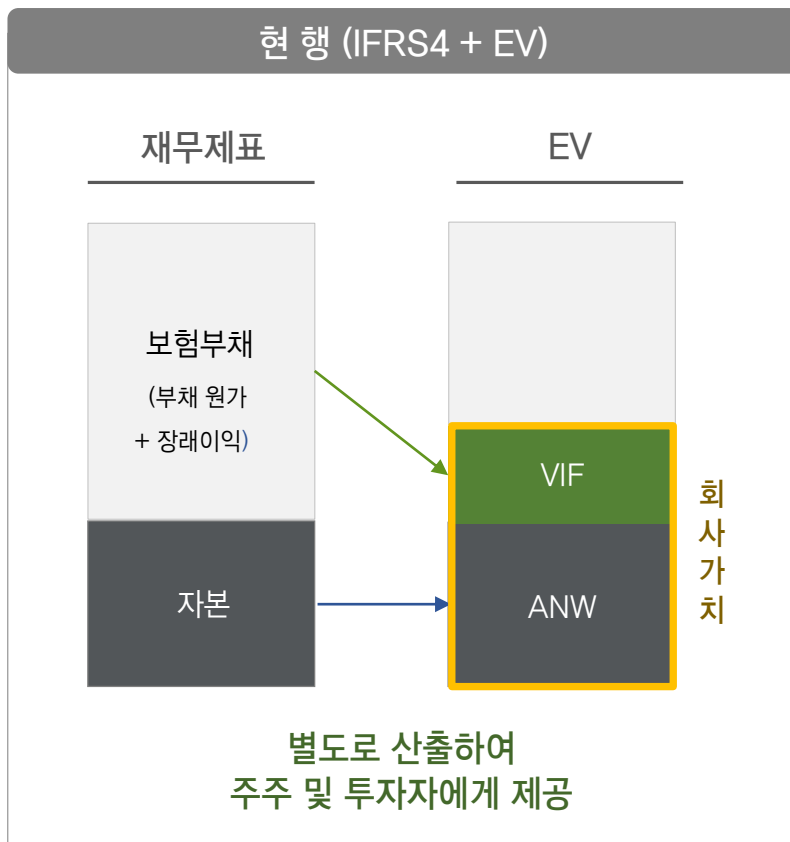


IFRS17 개요 및 재무제표 상 주요 변화

재경팀장

IFRS17 주요 변화 ①

- 보험부채 평가가 원가 → 시가로 변경, 원가와 장래이익 구분 표시
회사의 장래 예상이익 재원을 CSM으로 별도 표시하여 장래 가치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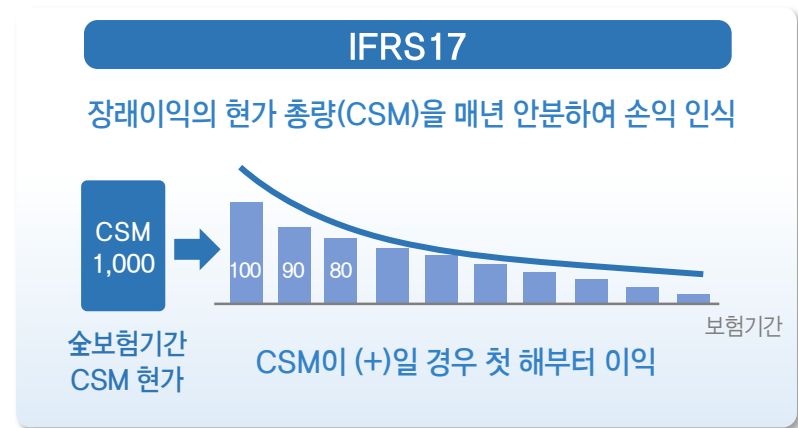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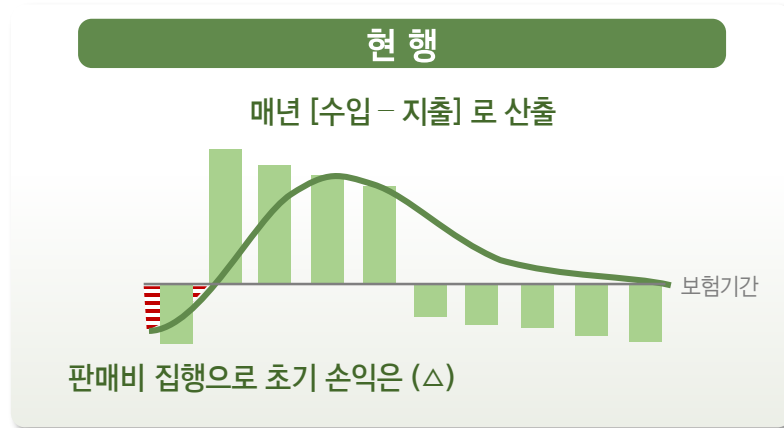


IFRS17 주요 변화 ②

> CSM을 보험기간 내에 분할하여 이익으로 인식

현행 매년 발생된 현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초기 손실 발생

IFRS17 **수** 보험기간에 대한 CSM 산출 후 보험기간에 나눠 인식하므로 초년도부터 이익 발생



> 당사의 경우, 이차 역마진 상당분 해소로 이차손익 개선

- ✓ '00년 이전 계약의 장래 손실을 '01년 이후 계약의 장래 이익으로 상계 처리하여 이익잉여금 감소 (△2조) 및 향후 투자손익 개선 효과 발생

IFRS 9 변경사항

➤ 현행 IAS 39 → IFRS9 주요 변경사항은 금융상품 분류/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금융상품분류

	IAS 39	IFRS 9
주식	단기매매/매도가능 선택	단기매매 원칙
	(매도가능 매각의 인식 可)	(단, 매도가능 매각의 인식 불가 *BS(잉여금)처리
수익증권	단기매매/매도가능 선택	단기매매만 가능
채권	단기매매/매도가능 선택	현행과 동일
대출	원가법	현행과 동일 *약대는 부채 내 시가평가

대손충당금 설정

	IAS 39	IFRS 9
대상	대출/사모사채	대출/사모사채/채권
분류	정상/부도자산	정상/부도자산/잠재부실 *잠재부실 추가적립
산출방법	경험 부도율 적용	경험 부도율 + 미래 경기전망 반영 필요 (경기 전망에 따라 추가 적립 or 축소 가능) *외부 기관을 통한 객관성 要

당사 주요 회계정책

➤ 안정적인 손익 관리를 위해 보험부채 · 금융상품 모두 기타포괄손익(OCI)법 선택

· 단, 변액 및 ALM 헷지대상은 P/L법 선택하여 자산 및 부채 변동분 상쇄를 통해 손익 영향 최소화

IFRS17 / IFRS9 적용에 따른 당사 회계 정책 결정

구분			대안	당사 정책
보험부채 (IFRS17)	소급 기간		장기 (3~5년)	단기 (1년)
	평가방식	대부분의 보험부채	당기손익 (P/L)	기타포괄손익 (자본)
		변액 ALM헷지	기타포괄손익 (자본)	당기손익 (P/L)
금융자산 (IFRS9)	평가방식	대부분의 보험부채	당기손익 (P/L)	기타포괄손익 (자본)
		변액 ALM헷지	기타포괄손익 (자본)	당기손익 (P/L) ¹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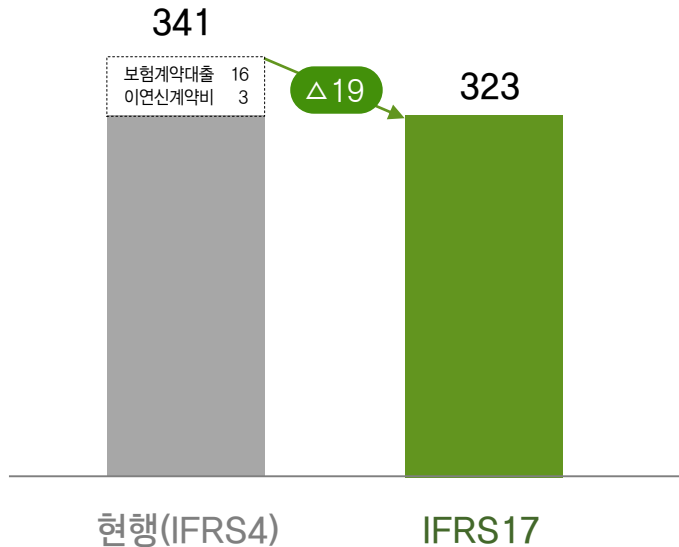
¹ PL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에는 일부 주식 및 수익증권도 포함되나 당사는 주식 비중 축소 및 수익증권 연결법 전환을 통해 손익변동성 최소화 추진 중

전환시점 재무상태표 주요 변경사항

➤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부채 +3조 증가 및 잉여금 △2조 감소 (세금 효과 △1조)

자 산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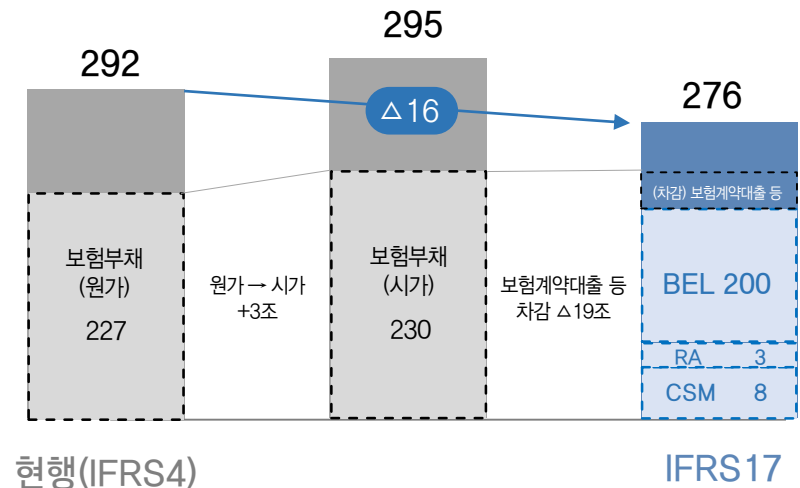


보험계약 대출 등 분류 변경

- 자산 → 보험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변경
- 효과 : 자산 △19조 / 부채 △19조

부 채

(단위:조원)



보험부채 평가기준 변경

- 원가 평가 → 시가 평가
- 효과 : 부채 +3조 / 자본(잉여금) △2조 (세금 효과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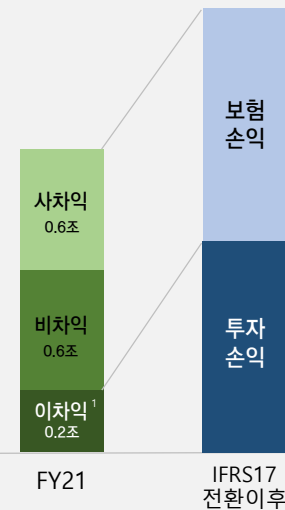
IFRS17 손익의 이해

IFRS17은 손익 원천(보험/투자)별로 구분하여 표시

* 현행(IFRS4)은 열거식(영업수익/비용)으로 표시



※ 경상손익(세전)의 변화



※ 투자손익

보험계약 대출 이자수입이 보험손익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투자수익이 일부 감소하나 보험부채 비용 큰 폭 감소 (준비금 부담이율 현행 4.1% → 3%초반)로 투자손익 개선

¹ 삼성전자 특별배당 및 매각의 제외한 경상 이차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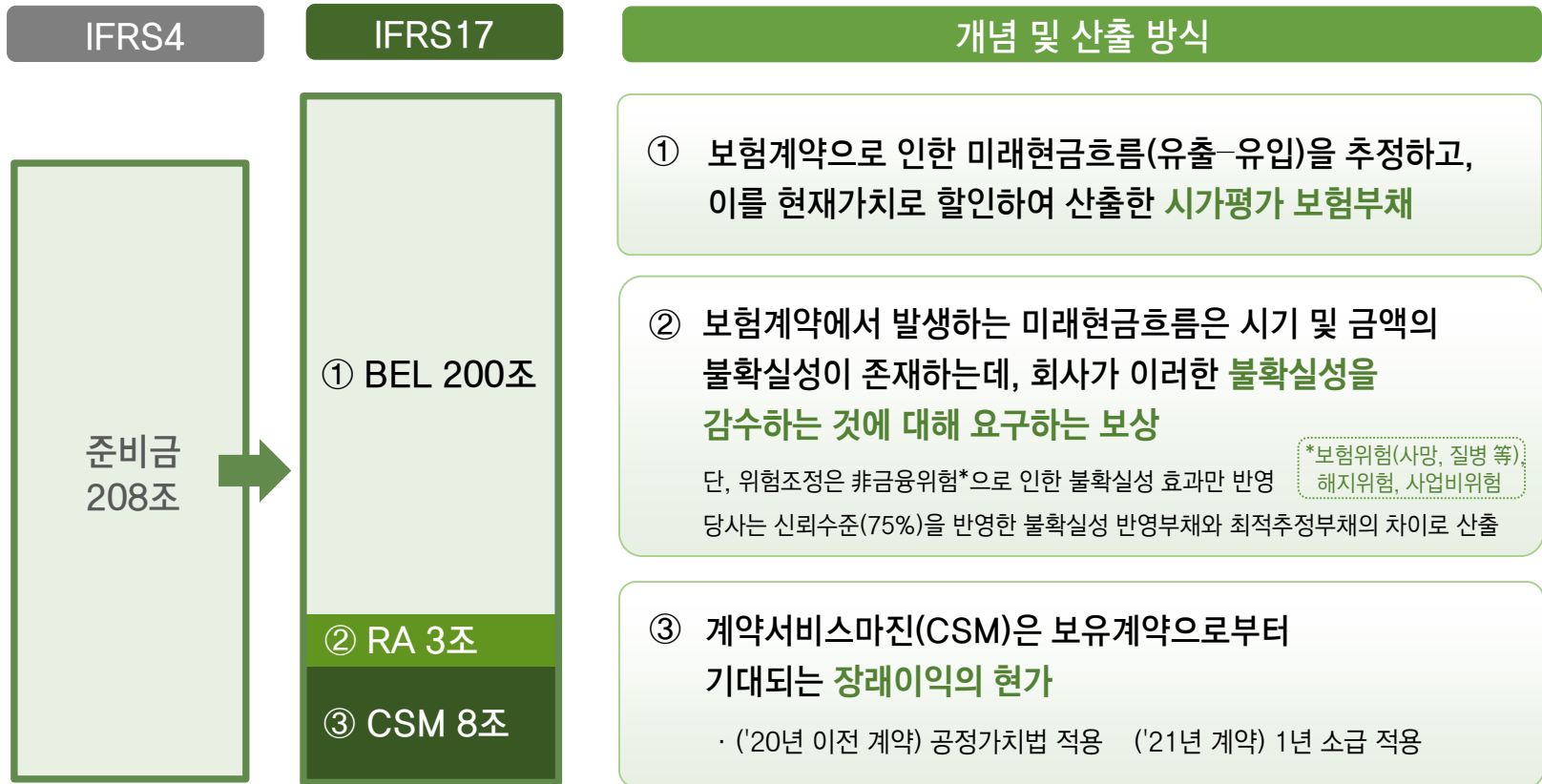


IFRS17 보험부채 및 CSM 손익의 이해

계리팀장

IFRS17 보험부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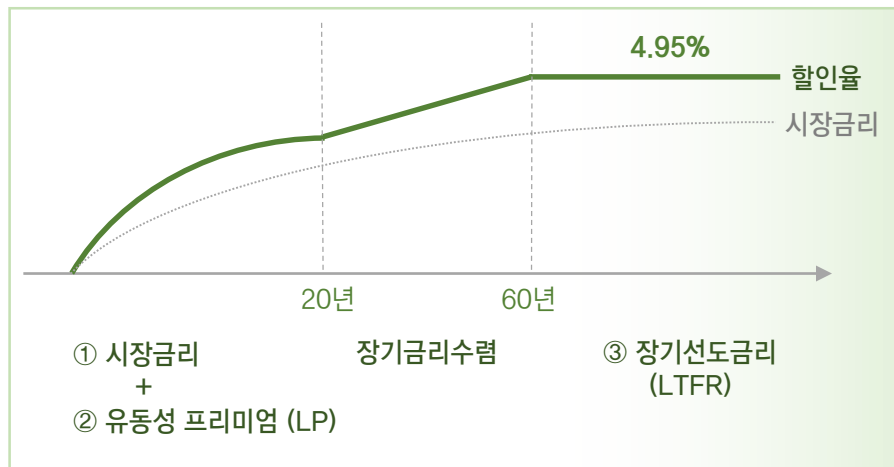
➤ IFRS17 전환시점('22.1.1) 보험부채는 총 211조이며, BEL/RA/CSM으로 구성



※ 보험계약대출 등의 분류변경으로 인한 효과 (약 △19조) 제외

IFRS17 할인율

> 할인율의 구조



항 목	산출 주기	'21.12월 기준
① 시장금리	평가시점末	2.26% (국고 10년물) 2.33% (국고 20년물)
② 유동성프리미엄	분기 1회	62.1bp
③ 장기선도금리	年 1회	4.95%

※ 할인율 산출에 필요한 유동성프리미엄(LP) 및 장기선도금리(LTFR)는 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수치 적용

> 할인율의 산출 및 적용

- ✓ 신계약은 **매월 재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부채(BEL/RA/CSM) 평가

※ 다만, 상품군별로 금리(할인율) 변동에 따른 CSM 증감이 상이하어, 상품 P/F 간 상쇄효과를 감안한 **신계약 CSM 총량의 금리민감도는 크지 않음**

- ✓ 보유계약은 **분기마다 재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부채(BEL/RA/CSM) 평가

- BEL과 RA은 재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재평가하며, 변동분은 OCI를 통해 조정
- CSM은 BEL/RA와 달리 재평가하지 않으므로 할인율 변동 효과 없음

당사 CSM 구성현황

➤ CSM은 계약년도, 유사속성으로 구분한 회계 단위별로 손익 처리 (회계단위간 상계 불가)

회계단위 구분 기준

계약년도 × 보장 유형 (3개) × 운영 형태 (6개)

* 사망, 건강, 금융

* 배당유/무, 금리(고정/연동), 변액, 외화, 자산연계

회계단위

'20년 이전 13개 + '21년 9개 + '22년 9개 = 31개 (매년 9개씩 증가)

※ 회계단위 내에서도 이익/손실/기타계약으로 구분되어 관리 (31 × 3 = 93)

총 CSM 규모 10조

※ '23.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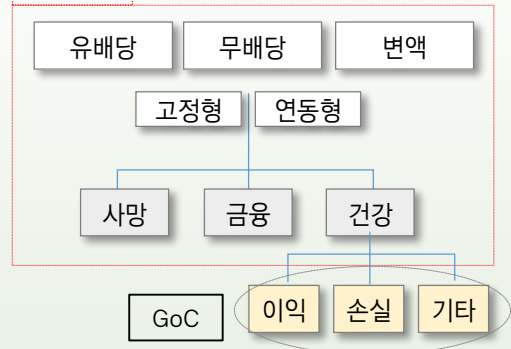
	'20년 이전 계약 (13개)							'21년 계약 (9개)						'22년 계약(e) (9개)					
	유배당	무배당 고정	무배당 변동	변액	외화	자산연계	소계	유배당	무배당 고정	무배당 변동	변액	외화	소계	유배당	무배당 고정형	무배당 변동형	변액	외화	소계
사망	-	(1)	(2)	(3)	(4)	-	4	-	(1)	(2)	(3)	(4)	4	-	(1)	(2)	(3)	(4)	4
건강	(5)	(6)	(7)	(8)	-	-	4	-	(5)	-	-	-	1	-	(5)	-	-	-	1
금융	(9)	-	(10)	(11) (12)	-	(13)	5	(6)	-	(7)	(8) (9)	-	4	(6)	-	(7)	(8) (9)	-	4

※ 변액 금융형은 변액연금(일반보형)과 변액저축(VFA모형)으로 구분, 재보험 회계단위는 제외 기준

※ 회계 단위 구분 ('20년 이전 계약 기준)

- 총 13개 상품포트폴리오로 구성
- 회계단위내 수익성 수준에 따라 3개 구분

회계단위



* Group of Con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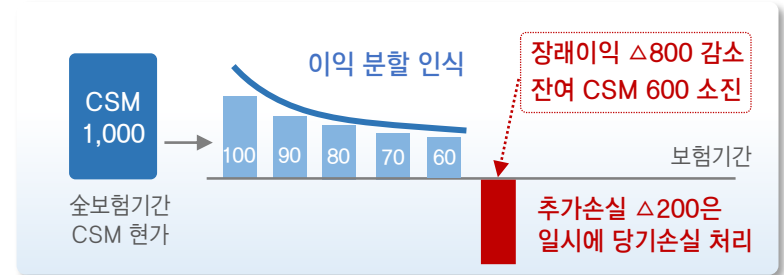
CSM 손익 인식

➤ 이익은 분할 인식(CSM상각액), 손실은 즉시인식(CSM손실액)

이익 CSM을 상각률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안분



손실 효율악화 등으로 CSM 소진시 당기손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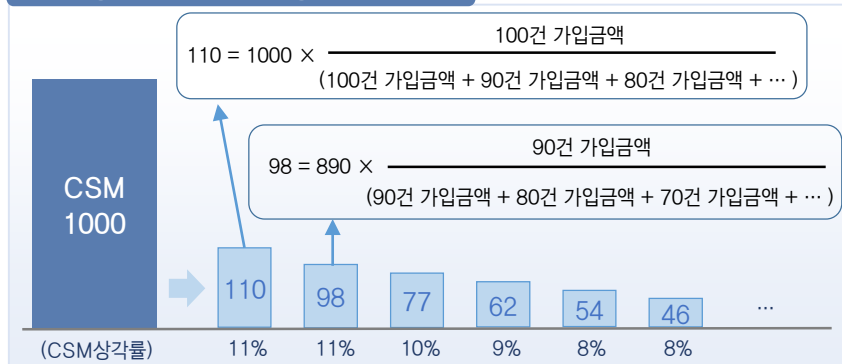


➤ 이익계약의 CSM 상각액 계산시 적용되는 CSM 상각률

$$\text{CSM 상각액 (당기 보험손익)} = \text{잔여 CSM} \times \frac{\text{당기 유지계약의 가입금액}}{\text{기간별 유지계약의 가입금액 합}}$$

※ 평균 CSM상각률 10%
 (신계약은 13.6%)

경과기간별 CSM 상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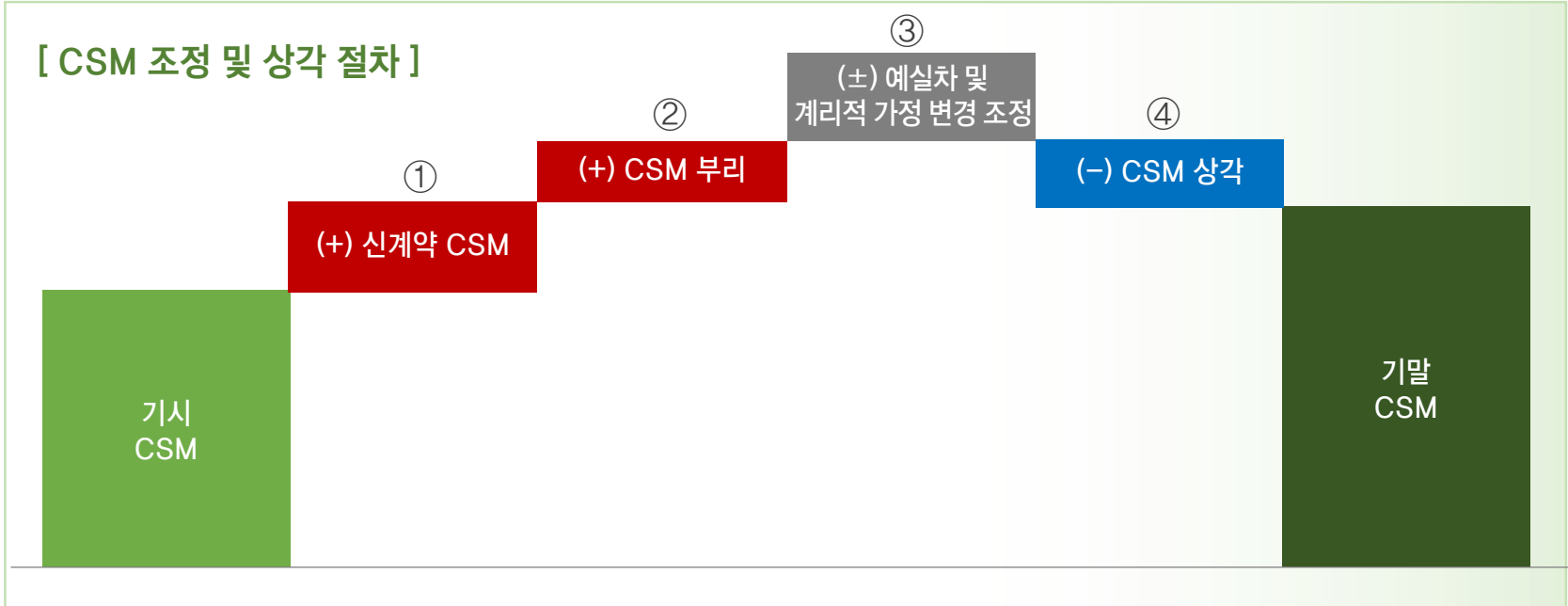
경과기간별 CSM 상각 예시 (PF별)

	CSM	경과기간별 CSM 상각액						
		1차년	2	3	4	5	6	...
사 망 (보장금액)	400	44 (11%)	36 (11%)	32 (10%)	26 (9%)	21 (8%)	19 (8%)	...
건 강 (보장금액)	500	51 (10%)	40 (10%)	33 (8%)	30 (8%)	28 (8%)	22 (7%)	...
금 용 (적립금)	100	5 (5%)	5 (6%)	5 (6%)	5 (6%)	6 (7%)	5 (7%)	...
전 사	1,000	100 (10%)	81 (9%)	70 (9%)	61 (8%)	54 (8%)	47 (7%)	...

CSM 손익 관리

➤ 신계약 확대를 통한 CSM 성장 및 효율관리 강화를 통한 CSM 관리 필요

[CSM 조정 및 상각 절차]



- ① 신계약 판매를 통한 CSM 추가 적립 (신계약 CSM은 연간 2.5~3조 내외 예상)
- ② CSM은 최초 할인율로 부리하며, 부담이자는 투자손익에 반영
- ③ 투자요소 예실차 및 매년 4분기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부채 변동분을 CSM에서 조정
- ④ CSM 상각을 통한 CSM 손익(보험손익) 인식



K-ICS 제도

RM팀장

지급여력 제도의 전환

➤ '23년부터 RBC → K-ICS로 제도 변경

	RBC	K-ICS
지급여력 [가용자본]	자산 (시가) 부채 (원가) 산출시점 해약 환급금	자산 (시가) 부채 (시가) 장래 예상되는 보험금, 환급금, 사업비 현재가치 할인
지급여력 기준금액 [리스크량]	보험, 시장, 신용, 금리, 운영 리스크 100년에 1번 발생할 손실	리스크량 증가 해지, 장수,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리스크 신설 200년에 1번 발생할 손실

제도 전환에 따른 주요 변화

➤ RBC下 경영환경 개선시 지급여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K-ICS 도입으로 해소

R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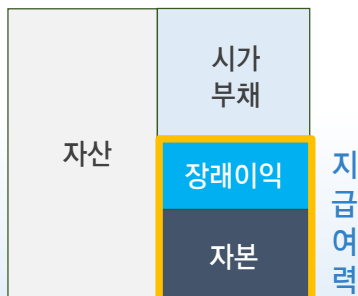
1) 신계약 영업 실적 증가



2) 금리상승으로 투자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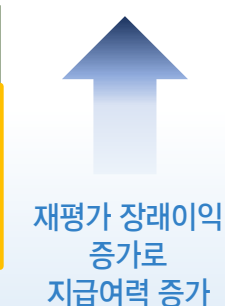
K-ICS



1) 신계약 영업 실적 증가



2) 금리상승으로 투자환경 개선



'22말 예상 지급여력 비율

	RBC	K-ICS
예상 비율	250%대	200% 이상
지급여력 [가용자본]	약 39조	+6조 내외 증가
지급여력 기준금액 [리스크량]	약 15조	+5조 내외 증가

RBC vs K-ICS 리스크량 비교

RBC

K-ICS

△분산효과/세금
리스크량 증가에 따라 분산효과 비례 증가
및 장래 세금 감면 효과 반영

보험
해지/대재해/장수/사업비
리스크 신설로 리스크량 증가

시장
자산집중 리스크 신설

신용
여유

K-ICS비율 민감도 및 향후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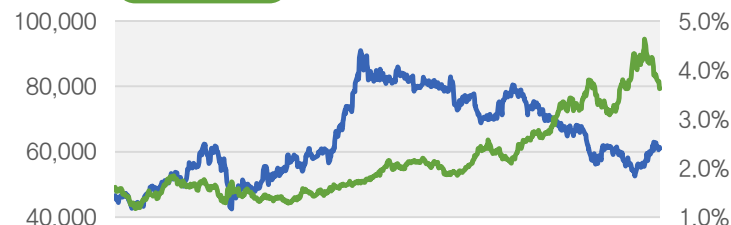
> 전자 주가 및 금리 구간별 K-ICS 민감도

전자 주가 \ 국채10Y	K-ICS 비율 전망 (%)			
	4.5%	3.3%	2.0%	1.1%
8.0만원	200% 초중반		180~200%	150%대
6.0만원				
4.2만원				

※ (금리 3.3% 이상 시) 전자 주가 1만원당 K-ICS 비율 민감도는 $\pm 5\%$ 내외

전자 주가 최근 3년내 4.2만 ~ 9.1만원

국고 10년물 최근 3년내 1.1% ~ 4.6%



최근 3년내 Worst 시나리오 (국고 10년 1.1%, 전자 주가 4.2만 가정)

> 위기 상황 에도 180% 이상의 K-ICS 비율을 견지

180%이상



150%대

ALM 헷지

파생상품으로
금리 하락시 자본 방어

공동재보험

금리 하락시
자본 감소 재보사 전가

계약재매입

고금리 계약의
장래 부담을 고려한
해지환급금 지급

장기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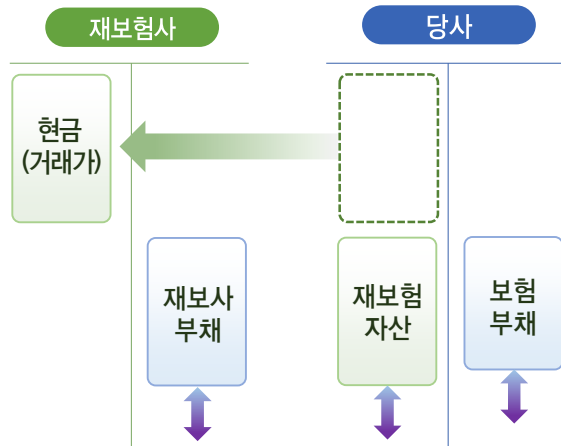
초장기채 매입 확대

※ 공동재보험 효과

공동재보험 거래



공동재보험 효과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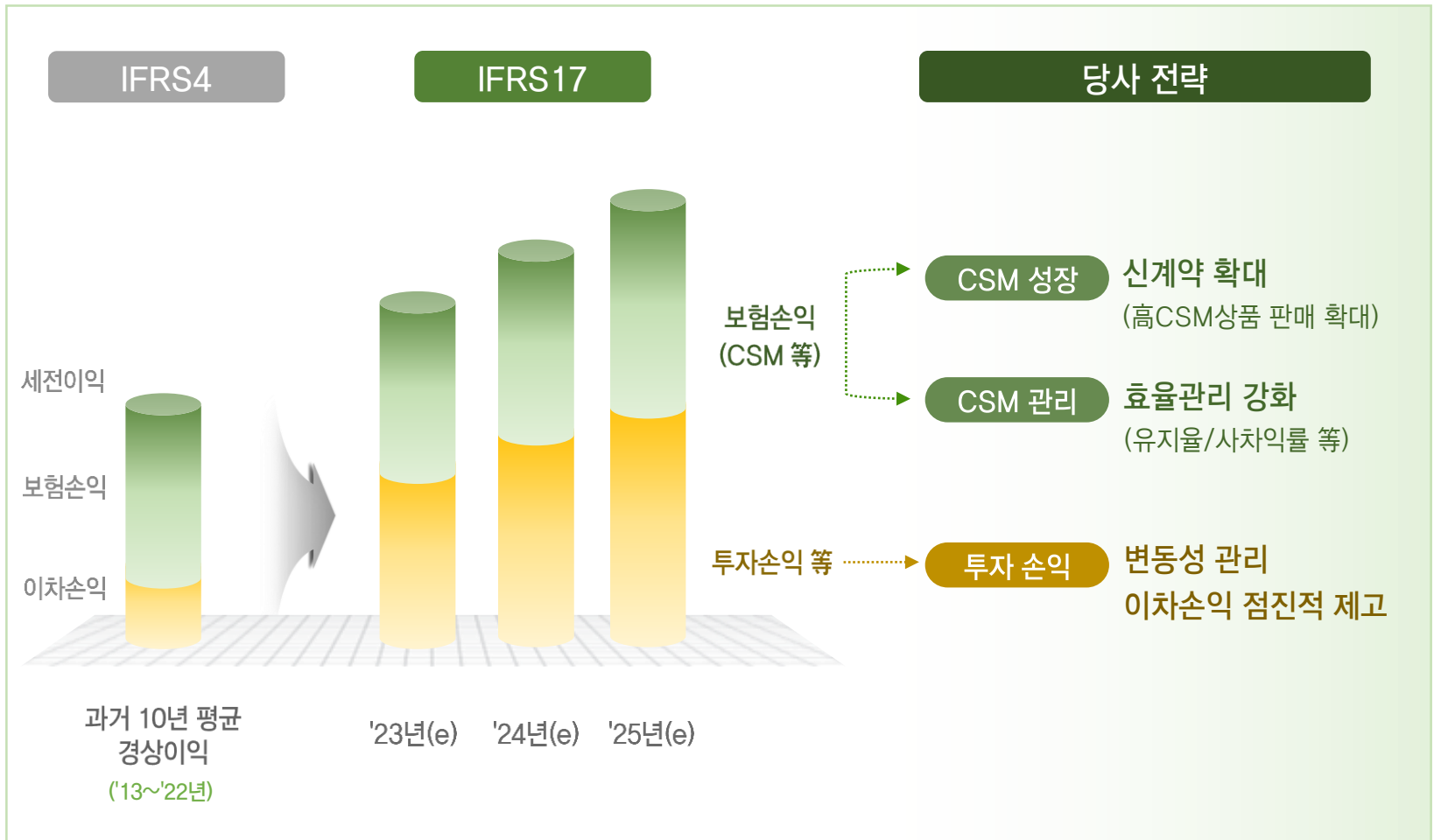
- ✓ 계약 특성별 ALM 수단 다변화 차원에서 공동재보험 플랫폼 활용을 시작하려는 목적
- ✓ 재보 출재를 통해 K-ICS 비율이 향상되며, 향후 금리 하락 등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자본 변동성 축소
: 금리 하락 → 부채 증가 ↕ → 재보 자산 증가 ↕ → 자본 불변
- ✓ 금리 리스크 축소 및 사차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향후에도 추가 출재를 검토 중



맺음말

CFO

IFRS17 이후 당사 전략



주요 메시지

- 
- 전환 이후 이원차 마진 축소 효과로 경상이익 체력 큰 폭 개선
 -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성은 축소, 손익 예측력 제고
 - 신계약 확대 및 보험 효율 관리를 통한 CSM 안정적 순증 기조 유지
 - 200% 상회하는 K-ICS 비율을 바탕으로 주주환원규모 점진적 확대 추진

감사합니다